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Living Satisfaction and Depress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of the Elderly

Kyung-Sook Kim*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Chosun Coulelge of Science & Technology, Gwangju,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implications for empirical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activities for senior citizens,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In order to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elderly students who are enrolled in the Senior Citizens' Welfare Center and participating in the information service education in the G-metropolitan city. The method of data analysis was verified by the Regress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2.0 statistical program. As a result, The level of activity for the elderly increases the level of self-efficac, The level of activity and self-efficacy of the elderly increased the level of living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It has been shown to lower the level of depression. Self-efficacy has been shown to have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nior citizens' level of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and living satisfaction and depression.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a policy measure was proposed to enhance the level of activities for senior citizens.

▶ **Key words:** level of information, self-efficacy, living satisfaction, depression according, mediated effect

[요 약]

이 연구는 노인정보화 활동수준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생활만족 및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G광역시 및 자치구의 노인복지관에 등록하여 정보화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귀분석과 계층적 회귀분석에 의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정보화 활동수준은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높여 주고, 노인정보화 활동수준과 자기효능감은 노인들의 생활만족의 수준을 높여 주었으며, 우울의 수준은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노인정보화 활동수준과 생활만족 및 우울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노인정보화 활동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정보활동수준, 자기효능감, 생활만족, 우울, 매개효과

-
- First Author: Kyung-Sook Kim, Corresponding Author: Kyung-Sook Kim
 - *Kyung-Sook Kim (kkysuk1@hanmail.net), Dept. of Social Welfare, Chosun Coulelge of Science & Technology
 - Received: 2020. 06. 10, Revised: 2020. 06. 19, Accepted: 2020. 06. 22.

I. Introduction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의 근거 법령으로서 노인복지법 제 36조에 의하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의 하나로서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1]. 이러한 노인복지관 운영의 사업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노인들의 건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케어 및 예방 체계의 구축과 확충 둘째, 활동적인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확립과 활성화 셋째, 안정적인 노인들의 생활을 위한 다양한 소득 보장의 충실화 등을 통하여 노후의 안정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총체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2].

21세기의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모든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커다란 변화를 야기 시켰고,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생활의 변화까지 초래하였다. 정보시대의 변화에 대한 노인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시점에서 노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노인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3].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노인들이 정보화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하여 정보습득과 관리방법을 습득하게 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점. 둘째, 노인들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정보화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는 점. 셋째, 노인들이 정보화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다는 점. 넷째, 노인들이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줄여 주어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 다섯째, 노인들이 정보화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하여 각종 분야의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여 일상생활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4].

이러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화교육프로그램은 평생교육 차원의 일반수업 과목 중의 하나로서 노인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하여 IT문화에 동참하는 정보화교육의 일환으로 인터넷, 파워포인트, 사진편집, 스마트폰 기초, 문서작성, 스마트폰 활용, 엑셀, 스마트폰 영상 제작반, 컴퓨터기초 등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만족도의 수준은 매우 높다.

본 연구주제와 관련해 노인복지관의 정보화 교실에 참여하여 정보화 교육을 수강 중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2017년 광미정·노상은·곽영길의 연구가 대표적이다[5]. 이 연구에서는 정보화 교육만족도의 구성요소로 교육내용, 교육강사, 교육방법, 교육환경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생활만족 간의 관계를 연구한 바 본 연구의 주제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을 시도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의 정보화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정보화 수준과 관련한 연구는 더욱더 찾아보기가 어렵고 이러한 차원에서 우선적인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본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 본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서광용, 2009[6], 허련, 2013[7])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우울에 관한 선행연구는 진행되어 왔지만(이영미, 2009[8] 주태하, 2011[9], 신순옥, 2018[10], 도경아, 2019[11]) 정보화 활동수준과 관련된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 우울과 관련된 구조적인 선행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여 선행연구로서 노인정보화 활동수준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생활만족 및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노인복지관의 정보화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정보화 활동수준은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 그리고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노인복지관의 정보화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과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자기효능감은 노인복지관의 정보화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정보화 활동수준과 생활만족 그리고 정보화 활동수준과 우울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II. A Review of Precedence Research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해 그동안 진행되어 온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는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자기효능감을 연구대상의 특성에 맞춰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만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진로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 간의 연구(서광용, 2009)[12],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 간의 연구(허련, 2013)[13] 등이 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는 편이다. 반면에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자기효능감과 우울에 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편이다. 이들 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자기효능감과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한 2009년 이영미의 실증분석 결과,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수 중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변수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변수가 우울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대[14]. 노인의 자기효능감과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한 2011년 주태하의 실증분석 결과, 노인의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우울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대[15]. 중년여성의 자기효능감과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한 2018년 신순옥의 실증분석 결과, 중년여성의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으면 우울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대[16]. 한국아동패널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효능감과 출산 후 여성의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한 2019년 도경아의 실증분석 결과, 출산 후 여성의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우울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대[17].

III. Study Design

1.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Setting

독립변수인 정보화 활동수준의 하위변수를 ‘정보화 활동 참가빈도’, ‘정보화 활동 참가기간’, ‘정보화 활동 참가강도’로 선정하였고 종속변수는 생활만족과 우울을 선정하였으며, 매개변수로는 자기효능감을 선정하여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노인복지관 정보화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정보화 활동수준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노인복지관 정보화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정보화 활동수준은 생활만족과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노인복지관 정보화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과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자기효능감은 노인복지관 정보화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정보화 활동수준과 생활만족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 가설 5. 자기효능감은 노인복지관 정보화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정보화 활동수준과 우울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 Data Collection and Method of Analysis

연구의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방법으로 연구대상의 범위는 G광역시 및 자치구의 노인복지관에 등록하여 정보화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시기는 2020년 4월 6일부터 2020년 4월 24일까지 2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진행하였다. 총 237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는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설문지 13부를 제외하고 224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분석은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귀분석과 계층적 회귀분석에 의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3. Measuring the Variables

연구의 설문지 구성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들을 본 연구의 내용에 맞게 구성하여 정보화 활동수준 3문항, 자기효능감 8문항, 생활만족 5문항, 우울 8문항으로 총 19개의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1 Variables Related to the Level of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정보화 활동수준과 관련된 문항은 총 3문항으로 ‘정보화 활동 참가빈도’, ‘정보화 활동 참가기간’, ‘정보화 활동 참가강도’ 등의 요인별로 구성하였다.

3.2 Self-efficacy Related Variables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설문내용은 Chen & Eden(2001)[18]이 개발한 설문문항에 대해서 조한주(2015)[19]가 사용한 설문을 본 연구의 내용에 맞게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설문내용은 “나는 여건이 많이 안 좋은 경우에도 나는 어떤 일이든지 잘할 수 있음”, “곤란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함”, “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잘 극복 할 수 있음”, “내 자신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대부분 달성할 수 있음”, “나는 타인들보다도 많은 일들을 더 잘 해낼 수 있음”, “나는 평소에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획득할 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함”, “나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일들을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음”, “내 자신이 노력을 다 한다면 어떤 일이든 성취할 수 있

다고 믿음” 등의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3. Life Satisfaction Related Variables

Diener와 그의 동료들[20]이 개발한 설문문항에 대해 이옥순(2011)[21]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활용하였다. 생활만족과 관련된 설문내용은 “나는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한 편임”, “현재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편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원하는 것들을 달성해 온 편이라고 생각함”, “만약에 다시 살게 된다면 현재의 나의 모습으로 살고 싶음” 등의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생활만족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35으로 나타났고 생활만족의 척도 구성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값이 높을수록 응답자의 생활만족의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3.4. Depression Related Variables

노인의 우울과 관련되는 연구에서 사용하는 우울에 대한 일반적인 척도는 Yesavage와 그의 동료들(1983)[22]이 개발한 GDS(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와 Sheikh그의 동료들(1986) 이 개발한 GDS-S(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er Version)의 척도를 응용하여 변호순(2005)[23]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활용하였다. 노인의 우울과 관련된 설문내용은 “현재 나는 절망적이라고 느끼고 있음”, “요즘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 편임”, “인생이 허무한 느낌이 자주 들기도 함”, “근심과 걱정 없이 현재 편안하게 지내는 편임”, “대부분의 일상적인 생활을 할기 있게 보내는 편임”, “전체적인 일상생활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음”, “가끔씩 슬프고 우울한 느낌이 들어서 힘든 편임”, “가끔씩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서 불안한 편임” 등의 총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생활만족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797로 나타났고 우울의 척도 구성은 부정과 긍정으로 구성하여 부정적인 대답이 많을수록 높은 우울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IV. Empirical Analysis

1. Information Service Activity Level and Self-Efficiency

“노인복지관 정보화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정보화 활동수준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에 대한 분석결과인 표 1.에 의하면 참여기간($\beta=.154$, $t=2.85$), 참여빈도($\beta=.158$, $t=3.05$), 참여강도($\beta=.127$,

$t=2.21$) $p<0.05$ 유의수준에서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높여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Table 1. Information Service Activity Level and Self-Efficiency

independent \ subordination	self-efficiency			
	β	t	p	R ²
participation period	.154	2.85		
participation frequency	.158	3.05	.017*	.413
participating strength	.127	2.21		

*: $p<0.05$

2. Information Service Activity Level and Life Satisfaction·Depression

“노인복지관 정보화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정보화 활동수준은 생활만족과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에 대한 분석결과인 표 2.에 의하면 정보화 활동수준은 $p<0.05$ 유의수준에서 참여기간($\beta=.160$, $t=2.93$), 참여빈도($\beta=.201$, $t=4.28$), 참여강도($\beta=.130$, $t=2.35$) 모두는 생활만족 수준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에 대해서는 <0.05 유의수준에서 참여기간($\beta=-.117$, $t=-2.03$), 참여빈도($\beta=-.213$, $t=-3.97$), 참여강도($\beta=-.225$, $t=-4.59$) 모두 우울의 수준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지지되었다.

Table 2. Information Service Activity Level and Life Satisfaction·Depression

independent \ subordination	life satisfaction			
	β	t	p	R ²
participation period	.160	2.93		
participation frequency	.201	4.28	.005*	.511
participating strength	.130	2.35		
independent \ subordination	depression			
	β	t	p	R ²
participation period	-.117	-2.03		
participation frequency	-.213	-3.97	.005*	.488
participating strength	-.225	-4.59		

*: $p<0.05$

3. Self-Efficiency and Life Satisfaction·Depression

“노인복지관 정보화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과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에 대한 분석결과인 표 3.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에 $\beta=.170$, $t=3.49$, 우울에 $\beta=-.144$, $t=-2.57$ 로 $p<0.001$ 유의수준에서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의 수준을 높여주고 우울의 수준은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

은 지지되었다.

Table 3. Self-Efficiency and Life Satisfaction-Depression

independent	subordination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β	t	β	t
self-efficacy	.170	3.49	-.144	-2.57
	p=.000***	R ² =.476	p=.000***	R ² =.511

***: p<0.001

4. The Intermediation of Self-Efficiency between the Level of Informatization Activities and the Satisfaction of Living

“자기효능감은 노인복지관 정보화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정보화 활동수준과 생활만족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 4에 대한 계층적 회귀분석 결과, 1단계는 $\beta = .123, t=2.15$ 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는 $\beta = .208, t=3.81$ 로 1·2단계 모두 p<0.05에서 유의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단계에는 독립변수로는 정보활동수준과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는 생활만족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beta = .115, t=2.012$ 로 나타났다. 따라서 3단계의 독립변수 효과보다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Table 4.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division	subordination	β	t	p	R ²
stage 1	level of activity	.123	2.15	.034*	.585
stage 2	level of activity	.208	3.81	.010*	.449
stage 3	self-efficacy	.115	2.012	.021*	.431

5. The Intermediation of Self-Efficiency Between Level of Informatization Activity and Depression

“자기효능감은 노인복지관 정보화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정보화 활동수준과 우울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 5를 검증하기 위한 계층적 회귀분석 결과, 1단계는 $\beta = -.136, t=-2.30$ 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는 $\beta = -.211, t=-3.91$ 로 1·2단계 모두 p<0.05에서 유의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단계에는 독립변수로는 정보활동수준과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는 우울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beta = -.135, t=-2.33$ 로 나타났다. 따라서 3단계의 독립변수 효과보다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가설 5는 지지되었다.

Table 5.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division	subordination	β	t	p	R ²
stage 1	level of activity	-.136	-2.30	.041*	.433
stage 2	level of activity	-.211	-3.91	.033*	.501
stage 3	self-efficacy	-.135	-2.33	.018*	.603

V. Conclusions

이 연구는 노인정보화 활동수준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생활만족 및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G광역시 및 자치구의 노인복지관에 등록하여 정보화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분석은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귀분석과 계층적 회귀분석에 의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정보화 활동수준은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높여 주고, 노인정보화 활동수준과 자기효능감은 노인들의 생활만족의 수준을 높여 주고 우울의 수준은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노인정보화 활동수준과 생활만족 및 우울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는 노인정보화 활동수준과 관련된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 우울과 관련된 구조적인 선행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워 본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여 선행적 연구로서 노인정보화 활동수준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생활만족 및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해서 검증해보았는데 이론적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검증결과를 토대로 노인들의 정보화 활동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인들의 정보활동이 많아져서 정보화 수준이 높으면 노인들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수준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정보화교육프로그램을 일상생활에 활용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충실한 내용을 통한 정보교육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정보시대의 변화에 대해 노인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컴퓨터 활용능력을 높여 주어 노인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소외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노인 IT문화 형성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노인들의 사회 참여 여건 조성 과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인복지관 정보화교육프로그램 이외에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정보화교육프로그램

의 운영을 통해 노인들의 정보활동을 활성화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정책제시에도 불구하고 연구표본이 광범위하지 못함으로 인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향후 연구를 통하여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Article 36 of the Welfare of the Elderly Act
- [2] [Http://busan.grandculture.net](http://busan.grandculture.net)
- [3] Mi Jung Kwak·Sang Eun Rohr·Young Gil Kwak, "The Effect of Informatization Education Satisfaction of Elderly Welfare Center on Elderly Information Usage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Creative Content Association, Vol. 17 No. 3, p.487, 2017.
- [4] [Http://www.hpcaritas.or.kr](http://www.hpcaritas.or.kr)
- [5] Mi Jung Kwak·Sang Eun Rohr·Young Gil Kwak, *op. cit.*, 2017.
- [6] Kwang Yong Seo,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ersonal value, and quality of life of convention staffs,"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Jeju, Feb, 2009.
- [7] Ryeon Heo, "The Relationship Among Motivation, Physical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of Soccer Club Members,"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Kook Min, Feb, 2013.
- [8] Young Mee Lee, "The Influence of Automatic thoughts, Perfectionism, Self-Efficacy upo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Depression,"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Keimyung, Aug, 2009.
- [9] Tae Ha Ju,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stress on depression of the elderly: Acomparative study with different types of household environment,"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Seoul Korea, Aug, 2011.
- [10] Sun Ok Shin, "A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Among Saju Type, Self-Efficacy and Depression in Highly Educated Middle-Aged Women with Discontinued Career,"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Aug, 2018.
- [11] Kyung A Do,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Self-efficacy on Maternal Depression in Infancy and Toddlerhood,"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CaTtholic, Dec, 2019.
- [12] Kwang Yong Seo,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ersonal value, and quality of life of convention staffs,"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Jeju, Feb, 2009.
- [13] Ryeon Heo, *op. cit.*, 2013.
- [14] Young Mee Lee, *op. cit.*, 2009.
- [15] Tae Ha Ju, *op. cit.*, 2011.
- [16] Sun Ok Shin, *op. cit.*, 2018.
- [17] Kyung A Do, *op. cit.*, 2019.
- [18] Chen, G, Gully, S. M, and Eden, D., "Validation of a 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Vol. 4, No 1, pp.62-83, Sep, 2001.
- [19] Han Ju Cho, "A Study of the Effects of Resilience factor on Flight attendants' Job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Kyonggi, Dec, 2015.
- [20] Diener, E., Emmonson, R., Larsen, R., & Griffin, S.,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83.
- [21] Ok Soon Lee, "Family-Friendly System and Male Worker's Work-family Conflict,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Chonnam, Aug, 2015.
- [22] Yesavage, J. A., Brink, T. L., Rose, T. L., Lum, O., Huang, V., Adey, M., & Leirer, V. O.,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ger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Psychiat. Res, Vol. 17, No 1, pp.37-49, 1983.
- [23] Ho Soon Pyu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the Elderly Living in the Unreported Residential Facility: Based on Hierarchical Linear Model for Individual and Facility Characteristics,"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Chung Ang, Aug, 2005.

Authors



Kyung-Sook Kim 2008 Professor of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Present Professor of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Interest areas: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elfare

policy, Child care and education, Youth welfare